

벤처기업 실패의 동태적 과정: 실패의 유형, 과정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한 종단적 분석[†]

The Failure of Venture Firm: A Longitudinal Study of Failed Firms' Taxonomy,
Failing Process, and Differences

장수덕(Sooduck Chang)*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실증적 연구 |
| II. 이론적 배경 | IV. 결론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실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실패의 원인, 과정, 실패의 유형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벤처기업의 생존과 실패를 10여 년간에 걸쳐 추적조사하고 2차례에 걸친 설문 조사를 통해 기업의 전략, 환경, 조직구조의 변화에 대해 종단적 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벤처기업의 실패 그리고 실패유형별 실패과정 및 실패원인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벤처기업의 실패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실패의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실패한 벤처기업들의 경우 실패의 다양한 경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경로에 따라 각기 다른 실패요인들이 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실패에 대해 사후적 분석을 시도하는 일반적인 연구들에 비해 벤처기업 실패의 동태적 과정을 파악하게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점에서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핵심어 : 벤처기업 실패, 실패유형, 동태적 분석, 실패과정, 조직쇠퇴

※ 논문접수일: 2009.8.6, 1차수정일: 2010.2.3, 게재확정일: 2010.2.7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B00297).

•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dchang@hnu.kr, 042-629-8487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failures of venture companies. The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auses and the processes of venture failures and the different paths that led to such failures. For the research, 116 firms registered with the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in 1997 were surveyed and traced in 2000. A questionnaire was sent to 105 companies that were operating at the time and 76 of them returned responses. In 2008, the 76 companies were re-traced, and it was found that 41 of them had failed while 35 survived. Through this process, a set of longitudinal data was gathered about the changes in strategies, environment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Accordingly, t-test and ANOVA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different causes and processes of venture failures, as well as the taxonomy according to the changes in circumstances. Empirical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Venture companies failed due to various reasons and there were very different failing processe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various failing paths existed among failed venture companies and different factors affected company failures. Considering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is clearly advanced and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existing researches in terms of the dynamic understanding of the failures of venture companies.

Key Words : Failure of Venture Firm, Taxonomy of Venture Failure, Longitudinal Analysis, Process of Venture Failure, Organizational Decline

I. 서 론

국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는 1997년 8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1998년 벤처경영연구가 창간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소위 ‘벤처붐’을 타고 생겨난 많은 벤처기업들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사라져갔다. 그 중에는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각광받던 벤처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벤처기업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 비교적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명암을 달리하거나 사라져갔으나, 왜 그렇게 실패의 과정을 밟게 되었는지에 관한 동태적인 분석과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기업의 실패과정과 관련하여 기업쇠퇴에 관한 연구들(이수도와 문계완, 2002; 권중생, 1997)이 있어왔으나 이들 연구들은 실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아니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아니다. 벤처기업 실패에 관한 연구들(이장우와 이성훈, 2004; 장수덕·이상설·Christopher Scott 2008; 장수덕, 2005)이 다소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실패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분석한 것이지 실패과정을 동태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다. 물론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반영하여 다소 동태적으로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 시도(장수덕, 2007)도 있었으나, 이들 연구로는 어떤 벤처기업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상에 어떠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기업의 생존이나 사멸과 관련된 연구는 조직생태학적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벤처기업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Hannan and Freeman, 1989; Romanelli, 1989; Stearns, Carter, Reynolds, and Williams, 1995). 그러나 벤처기업의 실패에 대한 분석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조직의 전략, 조직구조, 환경변화 등의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과정이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의 실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기업의 쇠퇴과정에 대해 사례분석을 시행한 Miller(1990)는 그의 연구에서 조직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활동영역(scope)과 변화(change)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는데, 그는 쇠퇴유형별로 전략, 핵심부서, 구조, 추락궤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통계적 검증이 적용된 실증적 연구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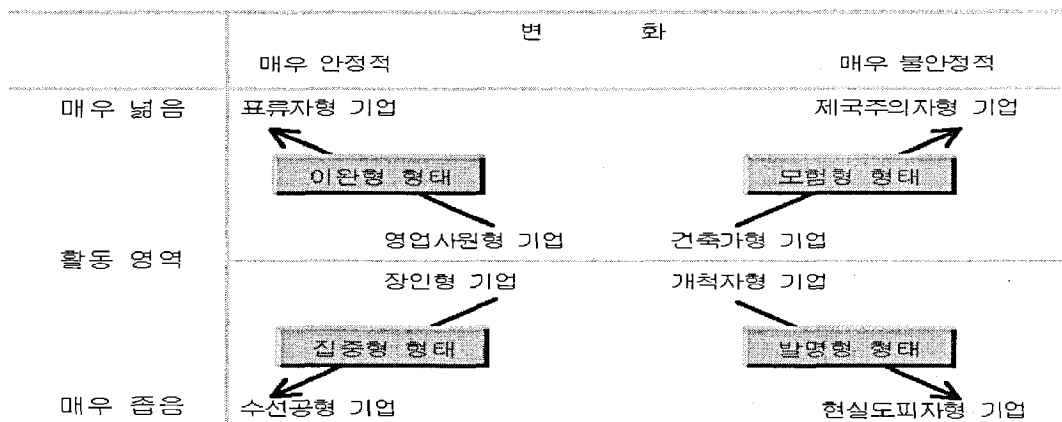
요약하면, 벤처기업 연구가 본격화된 이래 많은 벤처기업들이 흥망성쇠를 달리했다. 그러나 아직 벤처기업 실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연구한 것은 없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패한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전략, 조직구조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연구임

에 비해 연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이에 연구자는 10여 년간에 걸쳐 2차례의 설문조사와 추적조사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종단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벤처기업의 실패과정을 전략, 환경, 조직구조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업실패의 동태적 과정

Miller(1990)는 그의 저서 「Icarus Paradox」에서 기업을 흥하게 했던 강점이 외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업들이 생상품과 목표시장의 범위를 나타내는 활동영역(scope) 차원과 상품 구색과 제공 방법의 변동성의 정도인 변화(change) 차원을 극단적으로 전진하면서 성공할 수 있으나 결국 이에 의해 실패도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림 1)과 같이 실패의 과정을 집중형 쇠퇴, 모험형 쇠퇴, 발명형 쇠퇴, 그리고 이완형 쇠퇴로 나누어 설명한다.



자료: Miller, D. (1990), Icarus Paradox, Harper Business: New York, p.11.

(그림 1) 조직실패의 네 가지 유형

집중형 쇠퇴 기업은 기술개발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른 직능들은 무시하는 장인형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조직은 통제와 질서가 강조되고 따라서 매우 집권화된 관료적 조직구조로 변화될 수 있다. 집권화된 관료적 구조하에서 구성원들의 창의성은 억압받게 되고 기술혁신마저도 사려져 소비자들과의 괴리는 심화되고 고립되어 결국 수선공과도 같은 형태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험형 쇠퇴의 조직은 기업확장을 가속화하고 아주 관련이 없는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자사의 자원들을 고갈시킨다. 탐욕스런 조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핵심역량을 잃어버리고 무질서에 의해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된다. 발명형 쇠퇴의 조직은 참신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만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유토피아적 이상과 미래주의적인 기술, 은화하고 친근한 기업문화로 빠져드는 도피주의기업으로 쇠퇴하게 된다. 이완형 쇠퇴의 조직은 폭넓은 유통망으로과 시장지배력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사원형 기업에서 과거 성공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 상품의 질이나 소비자 욕구와는 관련성이 없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포장이나 이미지를 통해 시장을 지배하려다 쇠퇴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렇듯 Miller(1990)는 조직의 쇠퇴과정을 전략, 핵심목표, 핵심부서, 문화, 조직구조적 측면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인형 기업의 경우 품질이나 원가주도형 전략을 사용하고 집권화된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핵심부서가 운영, 생산, 기술 등인 공학적 문화를 가진 기업들이다. 모험형 기업의 경우 다각화전략과 성장에 목표를 두고 계획, 통제, 재무 등이 핵심부서인 사업부제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개척자형 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전략을 사용하며 연구개발을 중요시하고 유기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업사원형 기업들의 경우 마케팅 전략에 주력하고 조직일체형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분권화된 관료제를 띄는 형태가 많다. Miller 교수의 연구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기업의 실패는 전략, 환경, 구조구조, 조직문화 등의 복합적 변화과정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네 가지 기업쇠퇴 유형별 특징에 대한 요약이다.

<표 1> Miller의 기업쇠퇴 유형의 요약

유형별 분류		전략	목표	문화	조직구조
집중형쇠퇴 (집단공동체단계)	장인형 기업	품질 혹은 원가 주도형	품질 혹은 원가	공학적	집권화
	수선공형 기업	기술적 수선공형	완벽주의	기술관료주의	초집권화
모험형쇠퇴 (공식화단계)	건축가형 기업	팽창	성장	기업가정신	사업부제
	제국주의자형 기업	극단적 팽창	웅장한 규모	사냥꾼 정신	산산히 분해된 조직
발명형쇠퇴 (창업단계)	개척자형 기업	기술혁신	사회를 위한 과학	R&D	유기적 구조
	현실도피주의자형 기업	고기술 추구 현실도피주의	기술지상주의	두뇌집단주의	혼란스러운 구조
이완형쇠퇴 (구체화단계)	영업사원형 기업	현란한 판매기법	시장점유율	조직일체형 문화	분권화된 관료제
	표류자형 기업	무분별한 제품 생산	분가별 목표수치	정치적 문화	과도한 관료제

자료: 김인수 (2005), 「거시조직이론」, 무역경영사, p.519.

2. 벤처기업 실패의 원인과 과정

조직생태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기업의 실패에 대해 잘못된 선택에 따른 진화적 과정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Hannan and Freeman, 1989). 즉 기업이 어떤 산업에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가에 따라서 실패나 생존이 경로의존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Shepherd et al.,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생 소규모 벤처기업들의 경우 적절한 시장의 선택과 포지셔닝(positioning)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Parkhe, 1991; Honjo, 2000a,b). 왜냐하면, 신생기업들은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로서 필요한 학습비용과 자원의 제약, 제도적 미비와 비공식적 정보채널의 부족, 공급망이나 고객과의 연계 부족 등 많은 불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tinchcombe, 1965). 또한 소규모 기업은 조직여유(organizational slack) 자원의 부족, 재무적 자원에 대한 낮은 접근 가능성, 내부 노동시장의 미존재 등의 불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Aldrich and Auster, 1986; Bradley, III and Rubach, 1999).

하지만, 벤처기업의 실패과정이 산업내에서 신생성과 소규모성에 의한 불리함 때문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창업초기에는 오히려 창업자본이나 기업가의 열정과 같은 초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지 않고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Levinthal and Fichman, 1984; Brüderl and Schüssler, 1990). 창업초기 기업가들은 나름의 방식을 동원하여 환경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학습하게 된다. 그런데, 관성의 법칙에 의해 기업가들은 새로운 환경 하에서도 이전의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환경과의 부조화(misaligned)가 심해지게 되며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Baum, 1989; Barron, et al., 1994). 즉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잘못된 전략적 대응이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장수덕 등, 2008).

기업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의 실패는 Miller(1990)가 분석한 것처럼 조직 내부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조직구조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Greiner(1972)는 기업이 성장에 따른 적절한 조직구조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벤처기업들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보면,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조직구조 및 시스템의 발전은 중요한 경영과제로 제시되고 있다(Lippitt & Schmidt, 1967; Churchill & Lewis, 1983; Kazanjian, 1988; Kazanjian and Drazin, 1990). 기업은 성장해 감에 따라서 창업초기의 조직형태를 벗어나 발전된 형태의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전략적 대응과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나 발전보다는 몰락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이장우와 장수덕, 2001).

3.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

벤처기업의 실패와 관련된 연구들은 기업의 창업, 성장, 사멸의 문제를 많이 다룬 조직생태학자나 진화론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예컨대, Stinchcombe, 1965; Hannan and Freeman, 1984; Levinthal and Fichman, 1984; Baum, 1989; Brüderl and Schüssler, 1990; Henderson, 1999; Barron, et al., 1994 등). 이들의 연구는 기업실패의 원인을 외부 환경과 조직 내부적 문제를 동시에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점은 기업 내부의 전략이나 조직적 문제보다는 외부 환경 결정론적 성격이 강해 기업실패의 과정과 경로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패가 잘못된 선택에 따른 '운(luck)'과도 같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Shepherd et al., 2000). 연구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이들의 연구는 개별 기업단위의 전략이나 조직구조에 대한 분석보다는 기업군(population) 단위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Miller(1990)의 연구와 달리 개별 기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실패에 이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직론적 입장에서 벤처기업의 실패를 설명하는 연구들도 있다(Lippitt and Schmidt, 1967; Churchill and Lewis, 1983; Van De Ven et al., 1984; Kazanjian, 1988; Kazanjian and Drazin, 1990). 이들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핵심과제가 있으며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는 기업쇠퇴에 대한 연구들(Miller, 1990; 이수도와 문계완, 2002; 권중생, 1997)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실패의 동태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실증적 연구방법을 보면 대체로 횡단적 분석이 많다. 즉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그 단계에서 핵심과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일정 시점이 지나 실패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에 따라 실패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이장우와 이성훈, 2004). 따라서 결국 어떠한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실패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실패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사실상 Miller(1990)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Miller의 경우에도 대량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는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몰락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들이 발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Miller의 연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의문이 든다. 비교적 최근 이장우(2009)는 그의 연구에서 Miller(1990)의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의 강소기업들 역시 성공의 함정이 자칫 실패의 원인으로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술을 강조하는 기업은 시장에서의 실패를, 비전을 강조하는 기업은 열정적 다각화의 위험을,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강한 기업은 이미지에만 집착하는 함정에 빠져 실패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장우(2009)의 연구는 실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다. 따라서 창업초기의 위험을 극복하고 시장에 제대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하게 되는 벤처기업의 실패과정을 제대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 환경의 변화와 조직 내부의 전략이나 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한 종단적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III. 실증적 연구

1. 연구방법 및 분석체계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실패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상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자료가 필요하다. 벤처기업 실패에 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이장우와 이성훈, 2004; 장수덕 등, 2008)은 대체로 특정시점(t)에서 조사를 실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t+1) 다시 실패한 기업을 파악하여 특정시점(t)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실패원인을 분석하는 사후적 연구접근방법을 많이 사용한다(Lussier, 1995). 즉 과거의 특정시점(t)에서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실패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 추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의 문제점은 특정시점(t)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무런 변화 없이 지속되어 결국 그 원인에 의해서 실패가 이루어졌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거나 대응하면서 변화하게 된다(Pfeffer and Salancik, 1978). 따라서 환경적 변화에 따라 기업이 전략이나 조직구조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그 변화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실패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및 분석체계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는 1997년에 1차적으로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원사 120여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 다시 이들 기업중 생존한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으로 전략, 조직구조, 환경 등에 대해 파악했다. 연구자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 모두 응답한 기업은 76개의 벤처기업이며, 연구자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생존과 실패를 재조사 하였다. 그리고 파악한 실패기업과 생존기업 간에 전략, 환경, 조직구조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으

며 변화유형별로 그 변화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의 변화와 그 변화유형 간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1차와 2차 연구에서 모두 설문에 응답한 76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 시장, 원가에 대한 전략적 행동을 중심으로 기업유형을 구분했다. 동일한 설문내용을 시차를 달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각 시기마다 전략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조합하는 형태로 변화의 유형을 구분했다. 전략 유형구분에 사용된 통계적 분석방법은 군집분석을 사용했다. 군집분석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수를 확인했다. 그리고 군집별로 요인점수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군집명을 부여했다.

이렇게 구분된 벤처기업의 유형에 따라 전략, 환경, 조직구조 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벤처기업의 실패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시도했다. 다만, 본 연구와 같이 동일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종단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샘플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설설정을 통한 검증과 같은 방법보다는 탐색적 수준에서 벤처기업 생존 및 실패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변수들에 대한 정의 및 측정, 그리고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생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미 1-2차 연구들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모두 확보된 것들이며 본 연구에서 새롭게 측정하거나 설문조사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실패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자는 약 10년간에 걸쳐 2차례의 설문조사와 실패한 기업들에 대한 2차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했다. 2차례의 설문조사가 수행된 벤처기업은 총 76개 사이다. 연구자는 1997년에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원사 25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16개 회원사로부터 기업의 전략, 환경, 조직구조, 기업가특성 등에 대해서 1차적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2000년 말에 다시 이들 116개사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16개사가 파산하였으며 105개사가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2차 연구는 이들 105개사를 대상으로 다시 기업의 전략, 환경, 조직구조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연구당시 생존해 있던 105개 기업을 2008년 연말 다시 추적 조사하여 파산된 실패기업 41개사와 생존기업 35개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 실패에 대한 추적 조사는 국세청 휴·폐업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기간별 표본의 기본적 특성변화에 대한 요약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에서 보면, 본 연구의 표본은 2000년 연구기준으로 90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가 20개, 91-94년 사이에 설립된 회사가 23개사 95년 이후에 설립된 회사가 33개사 이다. 기업의 연령에 따라서 실패와 생존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연령에 따라서 실패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Stinchcombe, 1965; Levinthal and Fichman, 1988; Brüderl and Schüssler, 1990)은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의 경우 20인 미만이 16개사, 20인 이상 50인 미만이 28개사,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 15개사, 100인 이상이 17개사로 나타났으며 규모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실패를 규모의 불리함으로 설명하는 것(Aldrich & Auster, 1986; Meyer & Dean, 1990; Bradley, III & Rubach, 1999)도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연구기간 구분	1차 연구 1997년		2차 연구 2000년		3차 연구 2008년	
연구대상	한국벤처기업협회 250개 회원사		1차 연구샘플 116개 (파산-16, 생존-105)		2차 연구샘플 76개사 (실패-41, 생존-35)	
연구 샘플	116개 회원사		76개사 설문회수		76개사 비교분석	
					실패	생존
표본 특성	설립년도	90'이전 25개	설립년도	90'이전 20개	10개	10개
		91-94' 29개		91-94' 23개	13개	10개
		95'이후 61개		95'이후 33개	18개	15개
	종업원수	20미만 55개	종업원수	20미만 16개	8개	8개
20-49 38개		20-49 28개		15개	13개	
50-99 10개		50-99 15개		12개	3개	
100이상 13개		100이상 17개		6개	11개	

3. 벤처기업의 변화 유형과 유형간 차이분석

1) 동태적 변화유형의 구분

벤처기업의 변화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연구자는 Miller(1990)의 연구와 비슷하게 마케팅, 기술혁신 그리고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전략변수를 사용했다. 1차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결과 기술혁신, 마케팅, 원가절감의 순으로 3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요인별 요인점수를 변수로 저장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1군집은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에서 2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 < .01$, $p < .05$). 2군집은 마케팅에서 1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 < .05$). 따라서 1군집은 기술원가 중시형으로 2군집은 마케팅 중시형

으로 구분했다.

2차 연구에서도 요인분석결과 마케팅, 기술혁신, 원가절감의 순으로 3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요인별 요인점수를 변수로 저장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1군집은 마케팅, 기술혁신 그리고 원가절감에서 모두 2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에서만 나타났다($p < .01$, $p < .05$). 2군집은 마케팅에서 1군집에 비해 모든 것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1군집은 기술원가 중시형으로 2군집은 어중간형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1차와 2차 연구에서 나타난 유형의 변화를 조합하여 4가지의 변화경로를 파악하고 이들 각각의 경로가 결과적으로 생존과 실패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다음의 (그림 2)는 이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1차 연구에서 기술원가형은 62개 그리고 마케팅중심형은 14개로 나타났으며 2차 연구에서는 기술원가형 62개 그리고 어중간형 14개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원가형에서 기술원가형으로 변화한 기업은 51개이며 이중 27개가 실패했고 24개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원가형에서 어중간형으로 변화한 기업은 11개이며 이중 4개가 실패했고 7개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중심형에서 기술원가형으로 변화한 기업은 11개이며 이중 7개가 실패했고 4개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중심형에서 어중간형으로 변화한 기업은 3개이며 이중 3개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변화유형 경로에 있어서 생존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실패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연구방법 및 내용	1997년 1차 연구대상	2000년 2차 연구대상	2008년 3차 연구	
유형변화	기술원가형	기술원가형 51개	실패	27개
		어중간형 11개	생존	24개
	마케팅중심형	기술원가형 11개	실패	4개
		어중간형 3개	생존	7개
샘플수	기술원가형- 62개 마케팅중심형- 14개	기술원가형- 62개 어중간형- 14개	생존- 35개 실패- 41개	

(그림 2) 벤처기업의 동태적 유형변화

것이라 할 수 있다(Honjo, 2000a,b; 이장우와 이성훈, 2004; 장수덕, 2005; 2007; 장수덕 등, 2008). 이들의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에 따라 생존과 실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Miller(199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Miller는 성공의 함정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도 보면 기술혁신에 주력하면서 원가관리도 철저히 한 기업들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실패와 생존의 명암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동태적 변화유형별 차이분석

(1) 전략변화에 대한 차이분석

벤처기업의 실패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략적 변화와 벤처기업의 생존 및 실패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략의 변화는 1차 연구의 평균값에서 2차 연구의 평균값을 빼서 그 차이값을 사용했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생존기업과 실패기업간에 전략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이장우와 이성훈(2004)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는 전략적 변화를 살펴본 것이 아니라 본 연구와는 접근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생존기업과 실패기업 간 전략변화 차이분석

전략변화(t - (t + 1))	실패	생존	t값
원가우위 전략변화	.24(1.11)	.31(.79)	-.31
마케팅 전략변화	-.34(.81)	-.25(.83)	-.50
기술혁신 전략변화	-.02(.56)	.03(.53)	-.36

이에 연구자는 벤처기업의 (그림 2)와 같은 변화유형별로 전략변화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술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 < .001$). 표에 제시된 평균값의 차이를 보면 경로 5에서 기술혁신 전략의 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경로 5의 경우 기술이나 원가에 대한 전략적 치중은 약하며 마케팅전략에 집중하던 기업들이 기술과 원가위주로 전략적 치중이 변화된 기업들이다. 이 경로에 속한 A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정보분석을 통해 사업아이템을 잡고 국내에 와서 마케팅에 성공한 기업이다. 많은 투자를 받아 코스닥 상장까지 하였으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실패하고 몰락했다. 물론, 동일한 경로에서 생존한 기업도 있으나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아 이는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 실패경로 유형별 전략변화 차이분석

전략변화	경로1	경로2	경로3	경로4	경로5	경로6	경로7	F
원가변화	.27(1.12)	.26(.74)	.17(.88)	.62(1.06)	.19(1.40)	.08(.50)	.22(1.07)	.18
마케팅변화	-.48(.85)	-.28(.76)	.17(.43)	-.52(1.05)	-.14(.66)	.42(.57)	-.22(1.07)	1.11
기술변화	.12(.45)	-.03(.35)	.17(.64)	.62(.59)	-.71(.52)	-.67(.27)	.11(.19)	7.33**

** p < .01

(2) 환경변화에 대한 차이분석

환경의 변화가 벤처기업의 실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각된 경쟁강도에 있어 변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패한 기업과 생존한 기업 간에는 경쟁강도의 변화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특히, 실패한 벤처기업들의 경우 생존한 벤처기업에 비해 경쟁강도의 변화를 매우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이 벤처기업의 생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Romanelli, 1989; Tsai et al., 1991; Stearns et al., 1995). 본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벤처기업이 처한 산업환경에 있어서 경쟁강도가 심화되는 경우 벤처기업의 생존은 매우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생존기업과 실패기업 간 경쟁강도변화 차이분석

환경변화(t - (t + 1))	실패	생존	t값
경쟁강도 변화	-.53(1.01)	.13(1.00)	-2.87**

** p < .01

벤처기업의 변화유형별 환경의 변화가 그들의 실패와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형별 환경지각의 변화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특히 〈표 6〉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경로1, 경로3, 경로4, 경로7과 같이 주로 실패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경로에서 경쟁강도의 세기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비교하여 보면, 경로3의 경우 특히 환경변화에 있어 경쟁강도가 심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경쟁강도의 변화가 심화되는 경우 혹은 심화되는 환경변화 속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미비한 경우 벤처기업의 실패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 실패경로 유형별 경쟁강도변화 차이분석

환경변화	경로1	경로2	경로3	경로4	경로5	경로6	경로7	F
경쟁강도변화	-.67(1.08)	.23(1.05)	-.92(.74)	-.23(1.10)	.02(.89)	.17(.43)	-.09(.66)	2.19*

* p < .05

(3) 조직구조 변화에 대한 차이분석

조직구조의 변화와 벤처기업의 실패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연구자는 실패기업과 생존기업 간에 조직구조의 변화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식화와 분권화 모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공식화의 변화에 있어서는 생존기업이 강화되었으며 분권화의 변화에 있어서는 실패기업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수명주기나 성장단계에 따라서 조직은 적절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ippit and Schmidt, 1967; Churchill and Lewis, 1983; Van De Ven et al., 1984; Kazanjian, 1988; Kazanjian and Drazin, 1990).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분권화가 많이 진행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실패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생존기업과 실패기업 간 조직구조변화 차이분석

조직구조변화(t - (t + 1))	실패	생존	t값
공식화 변화	.30(.82)	-.44(.95)	3.63**
분권화 변화	-.42(.93)	.12(.62)	-3.02**

** $p < .01$

조직구조의 변화가 벤처기업의 실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벤처기업 변화유형별 조직구조의 변화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형별로 공식화와 분권화의 변화에 있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공식화의 경우 경로2, 경로4, 경로6과 같이 변화의 유형과 상관없이 생존한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성장에 따라 비공식적 조직에서 공식적 조직으로 변화되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Grenier(197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의 전략적 변화와 상관없이 조직은 성장단계에 따라 공식적인 조직으로 적절히 변화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분권화의 경우는 경로1, 경로3, 경로4, 경로5, 경로7 등에서 보다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특히 경로3의 경우 매우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략적 변화에 있어서 어중간한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이 분권화가 진전되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략이 어중간하면서 조직구조도 분권화가 강화되면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8〉 실패경로 유형별 조직구조변화 차이분석

조직구조 변화	경로1	경로2	경로3	경로4	경로5	경로6	경로7	F
공식화변화	.34(.90)	-.49(.99)	.19(.31)	-.43(.70)	.11(.91)	-.13(1.30)	.55(.35)	2.28*
분권화변화	-.28(.86)	.24(.62)	-1.06(1.26)	-.39(.43)	-.61(1.12)	.31(.52)	-.42(.63)	2.76*

* $p < .05$

IV. 결 론

지금까지 벤처기업의 실패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일부 학자들은 조직생태학적 관점에서 벤처기업의 생존과 사멸의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예컨대, Baum, 1989; Brüderl and Schüssler, 1990; Henderson, 1999; Barron, et al., 1994 등), 또 다른 연구자들은 조직론적인 관점에서 벤처기업의 성장과 단계별 생존에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제시했다(Lippitt and Schmidt, 1967; Churchill and Lewis, 1983; Van De Ven et al., 1984; Kazanjian, 1988; Kazanjian and Drazin, 1990). 하지만, 이들의 연구로는 벤처기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실패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해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쇠퇴에 대한 연구들(Miller, 1990; 이수도와 문계완, 2002; 권중생, 1997)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했다.

특히 연구자는 조직의 몰락과정을 연구한 Miller(1990)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도 다양한 몰락과 실패의 경로가 있을 것이라 보고 지난 10여 년간 2차례에 걸쳐 전략, 환경, 조직구조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벤처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연구자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실패에 대한 사후적 연구만으로는 기업의 생존과 실패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기존 연구들에서 벤처기업의 실패요인이라 밝혀진 것들이 생존기업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의 실패는 오히려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방향과 강도 그리고 그 속에서 기업의 전략적 그리고 조직구조적 대응방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발견과 시사점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바로 이렇게 벤처기업의 실패과정을 동태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발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실패는 어린 연령과 소규모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Levinthal and Fichman, 1988; Brüderl and Schüssler, 1990; Meyer & Dean, 1990; Bradley, III & Rubach, 1999). 그리고 실증적 연구에서도 벤처기업 실패에 있어서 연령과 규모는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Honjo, 2000a,b). 그런데 이러한 연구로는 벤처기업의 실패 과정에 대한 설명은 매우 어렵다. 비교적 최근 장수덕(2007)은 보다 진전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그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어린 벤처기업들의 경우 자원이나 역량의 부족이 원인이 되며 오랜 벤처기업들의 경우 급격한 환경변화가 원인이 되어 실패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그의 연구는 연령의 변화에 따라 벤처기업의 실패원인을 동태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패한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이러한 경로를 밟아 몰락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벤처기업의 실패와 생존이 연령이나 규모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Miller(1990)나 조직성장단계 이론(Lippitt and Schmidt, 1967; Churchill and Lewis, 1983; Van De Ven et al., 1984; Kazanjian, 1988; Kazanjian and Drazin, 1990) 연구들에서처럼 벤처기업의 실패는 다양한 연령대와 규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벤처기업의 실패는 전략유형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의 실패가 전략의 내용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Miller(1990)는 그의 연구에서 기업의 실패는 전략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으며 전략적 성공의 함정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략 그 자체의 내용보다는 전략적 변화의 강도나 내용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전략변화에 따른 벤처기업의 실패과정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는 시장과 마케팅에 집중하던 기업들이 기술과 원가위주의 전략으로 전략적 변화를 시도한 기업군들 중에 생존에 비해 실패한 기업이 많음을 발견했다(경로 5). 현실세계에서 보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던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개발에 주력하다 비용감당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벤처기업의 실패는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시장에 진입할 당시 경쟁적이지 않던 것이 이후 다수의 경쟁자가 출현하게 되고 경쟁강도가 심화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에 까지 이르게 되는 데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에만 주력하다 시장의 기회를 놓쳐 실패하거나(경로 1) 기술개발이나 상용화에 실패하여 명확한 전략이 없이 어중간한 상태를 유지하다 실패할 수도 있으며(경로 3) 마케팅에 주력하다가 자금고갈 등에 따라 특별한 전략이 없이 시장변화에 대응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경로 7)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벤처기업의 실패는 적절한 조직구조의 선택과 조직체계의 구축 등 조직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실패는

연령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조직의 체계 및 조직구조의 변화가 구축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패의 다양한 경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실패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기업성장에 따라 비공식적 조직에서 공식적 조직으로 변화하고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약하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실패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에 어떤 전략을 사용했더라도 이후에 전략적으로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조직의 분권화를 강화하여 오히려 일사분란한 조직운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로 3, 경로 7).

이렇듯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실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실패의 원인, 과정, 실패의 유형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가 벤처기업의 실패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실패의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실패한 벤처기업들의 경우 실패의 다양한 경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경로에 따라 각기 다른 실패요인들이 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실패에 대해 사후적 분석을 시도하는 일반적인 연구들에 비해 벤처기업 실패의 동태적 과정을 파악하게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점에서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수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10여 년간에 걸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 표본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소수의 표본을 다시 유형별로 나누어 차이점을 분석하다보니 특이한 사례들이 통계적 유의성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됨을 한계점으로 밝혀두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실패과정을 전략, 환경 그리고 조직구조의 변화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그런데 벤처기업의 실패과정에는 기업가의 인적·사회적 특성을 비롯한 여러 다른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수덕, 200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셋째, 벤처기업의 전략이나 조직적 특성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많은 변수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신생기업들의 경우 집중화 전략(Romanelli, 1989; Stearns et al., 1995)이 유리하다는 논의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전략차원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장수덕(2007)의 연구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생존에는 조직특유의 자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참고문헌

- 권중생 (1997), “경영자의 성격특성과 집단환상 및 조직쇠퇴 유형과의 관계: 경영자의 신경증 유형, 집단의 환상유형 및 조직의 쇠퇴유형사이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실증연구”, 「경영연구」, 12(2), 121-153.
- 김인수 (2005), 「거시조직이론」, 무역경영사.
- 이수도와 문계완 (2002), “조직쇠퇴에 대한 전략적 반응이 성과회복에 미치는 효과”, 「경영연구」, 17(3), 195-231.
- 이장우와 이성훈 (2004), “벤처기업 실패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인사·조직연구」, 12(특별호), 229-274.
- 이장우와 장수덕 (2001),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사조직연구」, 9(2), 59-92.
- 장수덕 (2005), “실패한 벤처기업의 특성: 사례연구”, 「경영연구」, 20(2), 21-46.
- 장수덕 (2006), “기업생존에 있어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 IMF 전후의 생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학연구」, 35(4), 1131-1155.
- 장수덕 (2007),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위험관리: 연령에 따른 위험, 자원기반 완충메커니즘, 그리고 생존”, 「벤처경영연구」, 10(1), 33-54.
- 장수덕, 이상철, Christopher Scott (2008), “벤처기업의 실패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연령기반 관점과 자원기반관점의 통합적 접근”, 「벤처경영연구」, 11(2): 41-63.
- Aldrich, H.E. and Auster, E.R. (1986), “Even Dwarfs Started Small: Liabilities of Age and Size and Their Strategic Implic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165-198.
- Barron, D. N., Elizabeth, W. and M. T. Hannan (1994), “A Time to Grow and a Time to Die: Growth and Mortality of Credit Unions in New York City: 1914-199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381-421.
- Baum, J. A. C. (1989), “Liabilities of Newness, Adolescence, Obsolescence: Exploring Age Dependence in the Dissolution of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nd Organizations”, *Proceedings of the Administrative Science Association of Canada*, 10(5), 1-10.
- Bradley III, D.B. and Rubach, M.J. (1999), “Small Business Bankruptcies: A Comparison of Causes from 1981 and 1995”, *Journal of Business & Entrepreneurship*, 11(1):

31-50.

- Brüderl, J. and R. Schüssler (1990), "Organizational Mortality: The Liabilities of Newness and Adolesce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 530-547.
- Churchill, N. C. and V. L. Lewis (1983), "The Five Stages of Small Business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30-50.
- Grenier, L. E. (1972), Evolution and Revolution as Organizations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50(4), 37-49.
- Hannan, M.T. and Freeman, J. (1989), *Organizational Ec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nderson, A. D. (1999), "Firm Strategy and Age Dependence: A Contingent View of the Liabilities of Newness, Adolescence, and Obsolesce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 281-314.
- Honjo, Y. (2000a), "Business Failure of New Firms: An Empirical Analysis Using a Multiplicative Hazards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8, 557-574.
- Honjo, Y. (2000b), "Business Failure of New Software Firms", *Applied Economics Letters*, 7(9).
- Kazanjian, R. K. (1988), "Relation of Dominant Problems to Stage of Growth in Technology-Based New Ventur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2), 257-279.
- Kazanjian, R. K. and R. Drazin (1990), "A Stage-Contingent Model of Design and Growth for Technology Based New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137-150.
- Levinthal, D. A. and M. Fichman (1988), "Dynamics of Interorganizational Attachments: Auditor-Client Relationship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3, 345-369.
- Lippitt, G. and W. Schmidt (1967), "Crisis in Developing Organizations", *Harvard Business Review*, 45(6), 102-112.
- Lussier, R. N. (1995), "A Nonfinancial Business Success versus Failure Prediction Model for Young Firm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3(1), 8-20.
- Meyer, G. D. and T. J. Dean (1990), "An Upper Echelons Perspective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Problem in High Technology Firms", *The Journal of High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1(2): 223-242.

- Miller, D. (1990), *Icarus Paradox*, Harper Business: New York.
- Parkhe, A. (1991), "Interfirm Diversity, Organizational Learning, Longevity in Global Allianc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2, 579-601.
- Pfeffer, J. and G. R. Salancik (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New York: Harper and Row.
- Romanelli, E. (1989), "Environments and Strategies of Organization Start-up : Effects on Early Surviv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4, 369-387.
- Scott, M. and R. Bruce (1987), "Five Stages of Growth in Small Businesses", *Long Range Planning*, 20(3), 45-52.
- Shepherd, D.A., Douglas, E.J. and Shanley, M. (2000), "New Venture Survival: Ignorance, External Shocks, and Risk Reduction Strateg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393-410.
- Stearns, T. M., Carter, N. M., Reynolds, P. D. and M. L. Williams (1995), "New Firm Survival: Industry, Strategy, and Lo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 23-42.
- Stinchcombe, A. L. (1965), "Social Structure and Organizations", in James G. March(Ed.), *Handbook of Organizations*, Chicago: Rand McNally, 142-193.
- Van de Ven, A. H., Hudson, R. and D. M. Schroeder (1984), "Designing New Business Start-Ups: Entrepreneurial, Organizational, and Ecolog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Management*, 10, 87-107.

장수덕

경북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벤처경영, 경영전략, 조직이론, 조직혁신 등이다.